

대행 스님

참나의 생명수의 맛을 보게 하는 내 스승이 바로 내 마음에 있다

'말은 하면 뭘 하나.'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말이 있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천차만별로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, 말은 하면 뭘 하나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듭니다. 그런 마음이 들면 하늘을 쳐다보고 어떤 때는 눈물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.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는 어떻게 걸어가는지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못 하는 채 그냥 무심히 가는 걸 보면 아예 말하기도 싫을 때가 많습니다.

아마도 여러분과 같이 나도 아픔을 겪나 봅니다. 보면 보는 대로 딱하고 그렇게 안됐을 수가 없습니다. 아무리 좋은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. 그래서 좋은 말을 하기 이전에 생활 속에 여러분과 같이 뛰어들어 같이 아픔을 나누고 같이 행을 해서 조금이나마 아픔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오죽이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.

때로는 크고 작은 일을 다양하게 이끌어 나가면서 삶이 좀 더 편리해지고,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온 집안에 따뜻하게 돌아간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이 말 저 말 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. 내가 답답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답답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죠.

집안이 화목지 못해서, 또는 한 가정 속에서 누가 괴롭다면 서로가 한마음이 돼서 이끌고 갈 수 있어야 나도 쉽고 서로가 다 쉬울 것을, 그렇지 못한 채 그저 자기 하나만 알고 자기 아픔만 알고 마음으로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서로 뭉치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때로는 '집안에서 조금만 누구가, 부부가 서로 한마음이 됐더라면 내가 더욱 쉬울 텐데, 나도 쉽고 그 집도 쉽고 서로가 쉬울 텐데 이렇게 답답하구나.' 하는 생각이 드는 때가 많습니다. 이거는 높은 부처님의 뜻과 말씀이 있기 이전에 우리들의 아픔 속에서, 그 조그마한 소용돌이 속에서 알아야만 하죠. 그걸 모른다면 부처님 말씀의 그 큰 뜻도 알 수가 없는 거죠.

여기 처음 오던 해입니다. 어머니가 혼자 딸을 하나 데리고 사는 집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상당히 완고하셨습니다. 아버지 없는 대신으로 엄마 몫 아빠 몫을 다 하면서 딸을 귀중하게 사랑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따님은 참 예쁘장하고 잘생겼는데 대학을 다니던 도중에 어느 사람을 사랑했답니다. 그런데 어머니가 알고는 "왜 아무나 그렇게 엄마도 모르게 만나러 다니느냐? 사랑할 것 같으면 왜 탁 털어놓고 그 집 부모와 서로 알게끔 하지 않느냐." 하니까 엄마가 알면 거부할 거라고 하더랍니다. 그러니깐 따님을 늦게 다니지 못하게 했지요.

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나가고는 싶은데 나갈 수는 없고 그러니깐 음료수에다가 잠드는 약을 좀 타서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. 조금, 그저 주무실 동안에 내가 갔다 오리라 생각했는데 그만 너무 약을 많이 탔던 모양입니다. 나갔다 들어오니까 아, 어머니는 돌아가셨잖습니까. 그 따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보니깐 이제 그 사랑하는 남자와 자기 마음대로 하게끔 됐습니다. 집으로 끌어들이고 어린애를 하나 낳았습니다, 결혼도 하기 이전에. 그 쪽 남자의 부모네들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여자 쪽 부모도 없으니 거기서 그냥 살도록 했습니다, 결혼을 시켜서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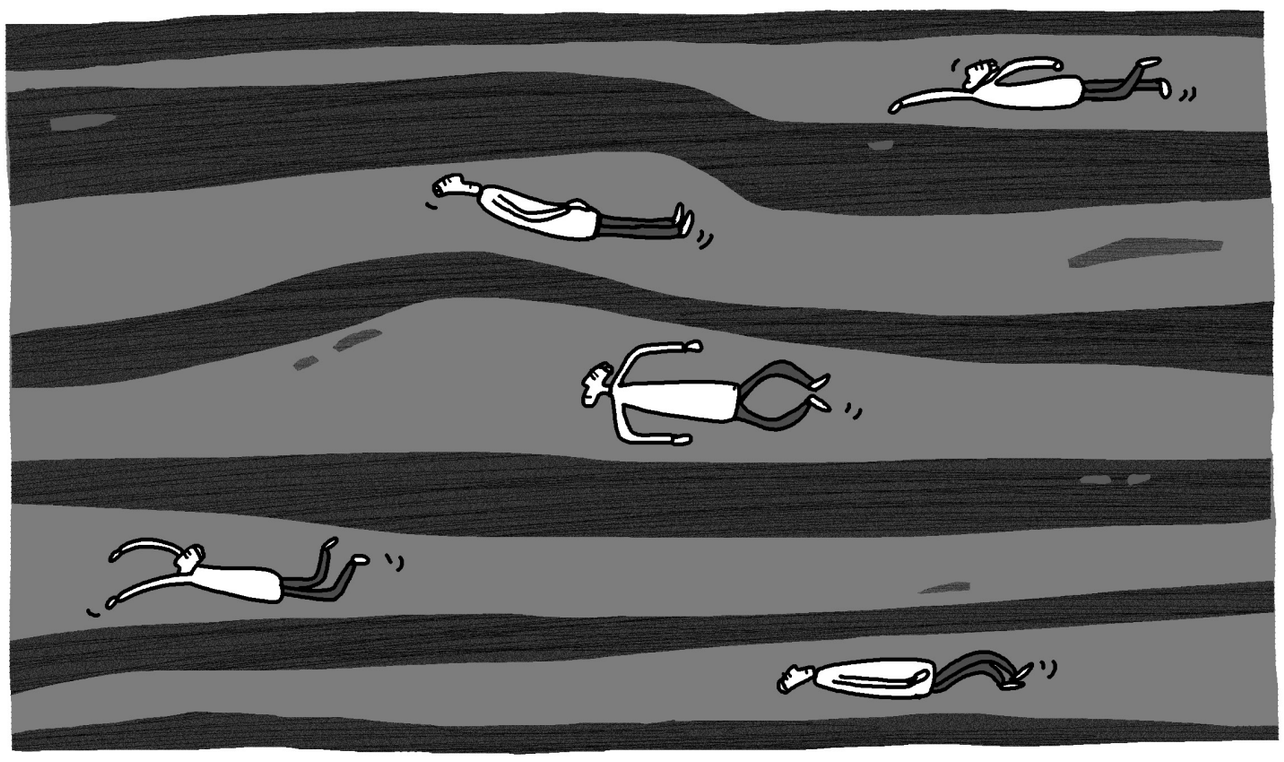


그림 · 최주현

그랬는데 어느 날은 어머니가 꿈에 턱 나타나시더니 "네 사랑을 위해서, 네 남편을 위해서 나를 죽이고 살맛이 나느냐?" 하시더랍니다. "너 하나 잘못된 생각으로 그것이 얼마만큼 화를 미치는지 너는 짐작도 못 할 거다." 라고 하면서 "나는 저 사람이 싫다!" 그러더랍니다. 그러고는 깜짝 놀라 깼답니다. 그런데 사흘 되던 날 남편이 죽었습니다. 남편이 죽고 배고 있던 어린애를 낳았는데 어느 날 그 집의 시어머니가 또 꿈에 보이더랍니다. 시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"네 남편을 잡아먹고 잘 살 것 같으냐?" 하더랍니다, 또. 그 시어머니는 살아 있는데도 꿈에 보이더니 어린애를 빼앗아서, 내 자식이니깐 내가 데리고 간다고 그러면서 빼앗아 안고선 물로 들어가더랍니다.

그 꿈을 깨고서는 앞서에도 어머님이 그랬는데, 시어머니로 보이면서 이렇게 되니까 너무 놀라서 어린애를 하루 종일 부둥켜안고 선 놓지를 않았답니다. 그랬는데 갑자기 경기를 하면서 숨을 몰아쉬더랍니다.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가니까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냥 진찰하는 도중에 죽고 말았더랍니다. 그 후엔 혼자 살다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 후에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. 내 생각으로는 그 한 생각이, 그 따님의 한 생각이 그런 불씨를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끊어지느냐 하면 끊어지지 않습니다. 내내 연결되고 얽히고설키게 되죠.

우리에게 현재 생기는 문제들이 우리들이 지어 놓은 것이지 지금 새삼스럽게 다가온 게 아닙니다. 그것을 우리는 끊는 게 아니라 녹이면서, 앞으로 개척하고 계발해서 내 마음의 차원을 질적으로 높여 가야 합니다. 그렇게 질적으로 높아졌을 때 미래에 다가올 것을 다 녹이고 윤회 속, 유전 속, 업보 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. 그렇게 벗어나야 어디고 아니 닿는 데가 없는 손 없는 손, 눈 없는 눈이 돼서 방방곡곡 어디에고, 누구한테나 이익을 줄 수 있고 불쌍한 사람들을 다 거두어 줄 수 있는 능력의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거죠. 남을 건질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보살행이거든요.

우리가 꼭 머리를 깎고 안 깎고 간에 생활 속에서 이익이 없다면 왜 종교를 가져야만 합니까? 종교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것이고 내 마음으로부터 이루는 것이고 내 마음으로부터 하는 것입니다. 지혜가 넓으면 넓은 대로 우리가 한데 합쳐진 공한 세상을 공하게 보고, 공하게 돌아가는 이 살림살이를 공한 데다가 다시 맡겨 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산다면 급급하지도 않을 겁니다. 가난해서 밥을 굶는다 하더라도 급급한 생각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. 아마도 옛사람 말처럼 '나물 먹고 물 마시니 이만하면은 만족할 것을 그렇게 그랬다' 고 말씀하실는지도 모르죠.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도 되지 않고 말입니다.

없는 것은 본인들이 더 잘 압니다. 각자 없는 것도 더 잘 알고 아픈 것도 더 잘 알고 매사의 문제들을 본인 자신들이 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,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걸 알기 때문에 어딘가가 모르게 공심으로 돌아가는 능력으로서 우리는 먹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미리 여축해서 먹으려고 생각을 할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. 여축해서 먹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오히려 구덩이에 빠지는 수가 허다합니다.

이 부처님 법이라는 건 그렇게 묘한 법이고 광대무변한 법이며, 불가사의한 법입니다. 그리고 그 법이 우리들 생활에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. 생활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생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 각자의 그 마음의 능력은 누가 그것을 좇아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보배인 것입니다.

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바깥으로 돌고 '내가 이렇게 해야 살 수 있지 않은가.' 하는 생각에서 그만 거기에 눈이 어둡게 되고 귀가 밝지 못하게 되고 또는 '내가 이렇게 살아서 뭘 하나.' 하는 생각에서 회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그것 역시 이 법을 소상히 알지 못한 탓입니다.

☞ 22면으로 계속

